

# 3개 업체 익산 일반산단 분양계약

## 연두·유셀 제4산단, 제이엔엘테크 제3산단

익산시 최대 현안인 일반산업단지 분양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익산시는 최근 (주)연두, (주)유셀 및 (주)제이엔엘테크와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주)연두는 두유, 파우치음료 등 생산 창업기업으로서 올해 3월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지 2개월 만에 제4산단 4,960㎡ 부지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30여억원을 투자하여 올해 5월 착공,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

다. 계약된 납품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20여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장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유셀은 제4산단에 입주한 마스크 팩 등의 소재인 바이오 셀룰로오스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추가로 1,653㎡ 부지를 분양계약하고 30여억원의 투자를 통한 증설을 올해 안에 완료하는 한편 추가 부지매입도 검토하고 있으

며, 국내의 메이저 화장품 업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매출 증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제이엔엘테크는 안산시 소재 건식플라스마 표면처리 및 장비업 체로서 추가로 제3산단 4,160㎡ 매입하여 총면적 1만760㎡ 부지에 신재생 에너지로서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연료전지 분야 사업 확장을 위해 100여억원을 투자, 3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기반시설 구축 등 입주기업 지

원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분양을 완료할 때까지 전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여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익산시에 투자를 결정한 업체에 시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투자기업이 조속히 입주하여 조기 정착 및 경영안정화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사항을 신속 처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한국지엠 군산공장 생산차량 홍보

### 군산시, 서천군청에서 '신형 올 뉴 크루즈' 등 전시

군산시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생산차량 판매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시책 추진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와 한국지엠군산공장측은 오는 16일 서천군청에서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신형 올 뉴 크루즈 및 올란도 차량을 전시하고 청사를 방문하는 군민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판매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군산공장 생산차량의 안정성과 내구품질의 우수성 뿐만 아니라 말리부, 임팔라, 스킵 등 한국지엠의 주요 인기차종도 같이 전시하여 홍보하고, 이와 병행하여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진수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전

시는 서천군과 군산시 상호 우호를 증진 하는 교류의 장을 넘어 한국지엠군산공장의 신형 올 뉴 크루즈 성공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며 "향후 한국지엠측과 서천군 상호발전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 교류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신형 올 뉴 크루즈 양산에 맞춰 한국지엠 차량점유율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관내 1,300여개 유관기관 및 기업체에 서한문 발송을 시작으로 유관기관 간담회, 한국지엠군산공장 발전 실무협의회 거리 캠페인, BUY군산 보고회, 전북도 시정군수 협의회와 의정단 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구매운동 펼치고 있다. /군산=김관근 기자



## 정현을 익산시장, 대중교통 출근

정현을 익산시장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해 눈길을 모았다. 정 시장은 2일 오전 7시 50분 부송동에서 시청까지 6.18km 구간을 시내 버스를 이용했다. 출근하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버스를 이용하며 느끼는 불편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기사의 노고를 따뜻하게 격려했다. 정 시장은 이날 관련 부서에 "시내 버스 노선안내도 정비가 잘 마무리된 것 같다. 버스 운행 시간을 잘 지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해 달라"며 "특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추진하는 업무용택시 운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아동 위한 동물매개교육' 학술대회 개최

### 원광대 동물자원개발연구소서

원광대학교 동물자원개발연구소는 '아동을 위한 동물매개교육 적용과 비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회원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한국방송통신대학 서울지역학술관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동물매개교육'에 관한 연구 성과 확산과 향후 연구 방향 정립을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에서는 ▲동물매개교육의 전망과 현황(김옥진 교수, 원광대) ▲아동기 심리사회적 발달과 동물매개치료(이시종 교수, 상지대) ▲아동 동물매개교육의 방향과 체계(장성민 교수, 군산대) ▲동물매개 중재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공감능력과 또래 관계에 미치는 효과(이유자, 대한교육극단협회) ▲동물매개 중재 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의 정서 지능, 사회성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임은경,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원광대학교 동물자원개발연구소는 '아동을 위한 동물매개교육 적용과 비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옥진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반려견이 아동에게 주는 정서적, 심리적 이점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고 있다"며, "교육에 이러한 이점을 접목해 효과적인 동물매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수행하는 '아동 인식 향상을 위한 동물매개교육 모델 개발' 과제의 연구

방향 정립과 동물매개교육의 과학적 접근 및 표준화 연구의 타당성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대 동물자원개발연구소는 농촌진흥청 TOP5 융복합프로젝트 반려동물 산업과 자원기술 개발로 '아동인식 향상 동물매개교육 모델 개발' 책임 기관으로 선정돼 관련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시 미래농정국 출범 100일, 청사진 밝혀

### 명예농업시장제·정책제안 창구 등 운영... 2018년 27개 사업 1249억원 신청

익산시는 2일 익산시 브리핑룸에서 북부청사 미래농정국 출범 100일을 기념하여 익산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익산시가 북부청사 미래농정국을 신설하고 농민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미래농정 혁신과제를 발굴한 과정과 이를 확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한 실적과 청사진을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농정 비전홍보를 위하여 익산시 농민연대, 익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고, 익산시 미래농정 비전 선포식에서 희망 메시지 전달, 6차 산업을 통한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익산시 명예농업시장제 운영 조례 제정 및 명예농업시장과 정책자문단을 위촉 운영,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 혁신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프라 구축, 농산물 판로 개척,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공동사업 추진방안 논의 등 미래농업을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 농담(農談)토크 등을 통한 좋은 의견과 정책제안 창구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를 통한 2018년 농림축산식품산업 27개 사업 1,249억원을 신청했다. 유희환 미래농정국장은 "혁신과제를 알차게 추진하여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민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국가예산 확보 보고회

군산시는 2일 문동신 시장이 주재한 가운데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활동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시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해당 과장들은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및 계속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중앙부처 활동내역을 보고하고 대응노력 개발 및 문제점, 대책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군산=정현 기자

## 군산시, 올해 일자리 1만3000명 창출 목표치 공시

군산시가 올해 일자리 1만3,000명 창출 목표치를 지역 고용네트워크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목표와 대책을 공표·추진하고 중앙정부는 그 대책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를 확인·공표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대책을 일컫는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1만3,000명을 목표인원으로 설정하고 전 부서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며, 민선6기 핵심공약인 '일자리 1만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10개의 세부 과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18년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가동중단 및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표인원 대비 88%인

1만,442명을 달성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직접일자리사업 6,409명,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지원 1,217명,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568명 등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더불어 지난해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군산시는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발굴하여 국비 32여억원을 지원받아 1,4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2017년도에는 군산 조선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으로 국비 59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에 개소한 조선업 일자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조선업 퇴직(예정)자를 위한 전직, 취업프로그램, 구인구직알선, 맞춤형 상담지원 등을 통해 조선업종 근로자들이 재취업 및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정현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